

# 제 860차 OECD 개발원조위 회의 결과

## 『동료검토 방법론』

제 860차 OECD 개발원조위 회의가 2007. 1. 8(월) 개최되어 신임의장단을 선출하고, 동료검토(Peer Review)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의 조직과 운영, ⑤ 특별이슈(DAC 및 검토대상국 선정 이슈), ⑥ 원조의 효과성 등 6개 분야로 재구성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가이드(content guide)도 개정하여 2007년도 동료검토부터 적용키로 함.

### I. 핵심 요지

#### 1. 2007년도 신임 의장단 선출

- 의 장 : Richard Manning (영국, 유임,  
2007년 말 임기종료 예정)
- 부의장 : Jose Manuel Albares(스페인),  
George Carner(미국, 재선),  
Kristin Langsholt(노르웨이)

DAC 동료검토(Peer Review)의 개선방안을 토의하여, 동료검토 보고서를 ①개발원조의 전략적 기초, ② 정책의 일치, ③ 공적개발원조, ④ 개발원조

### II. DAC 동료검토 방법론 (Methodology)의 검토

#### 1. DAC 동료검토 보고서 구조의 변경: DCD/DAC(2007)1

가. 현재 DAC 동료검토시 사용하고 있는 보고서(Part II)의 형식은 2006년 1월의 “Content and Learning Guide”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사무국은 일부 DAC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그 간 동료검토 경험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함.

- 사무국은 기존의 ‘동료검토 내용 및 학습가이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동료검토 시행과 보고서 작성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DAC Peer Review Content Guide”와 동료검토를 통해 얻은 교훈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Learning through Peer Reviews”의 2개 문서를 준비함.

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사무국의 구조변경 제안에 대해 그간 동료검토의 경험과 현재의 개발원조의 중점 동향을 감안, 사무국이 제시한 6개의 장(Chapter)으로 보고서를 작성키로 하고 2007년도에 시행될 덴마크, EC에 대한 동료검토부터 적용키로 함.

- 제1장 개발원조의 기초(Foundation of Aid)
- 제2장 정책의 일치(Policy Coherence)
- 제3장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제4장 조직과 운영(Management and Organization)
- 제5장 특별이슈(Special Issues)
- 제6장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
- 부록(Annexes) : 종전 동료검토 권고 이행 목록, 표준 테이블, 인도적 원조 사업의 평가, 현장방문 보고서 등

다.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원국들은 금번 개선안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특히 원조의 효과성을 별도의 장으로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여 파리선언의 이행상황을 포함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점검토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환영함.
- 정책의 일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기를 희망하였으며, 기존의 인도적 원조부분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록에 포함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함. 다만 공여국간의 비교가 필요한 분야 즉 기준과 목표에 따른 비교에 대해서는 다수 회원국이 공여국마다 특성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별 비교에는 신중해야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그러나 사업에 대한 변화 추이(trend)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함.
- 제5장의 특별이슈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야별 분석은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 초점을 맞춘 소수의 주제에 대해 분석하기로 함에 따라 DAC가 선정한 1개 주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1개 주제는 동료검토 대상국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짐.



## 2. DAC 동료검토 내용 가이드:

### DCD/DAC(2007)6

- 동료검토의 시행 및 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DAC Peer Review Content Guide”는 6개의 장(chapter)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준거가 되는 각종 지침 및 가이드 등 references를 새로이 추가한 것이 특징임. (상세는 문서 참조)
- 어떤 이슈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제5장의 특별이슈에 대해서는 2개의 주제를 선정하되 DAC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이슈 1개는 DAC가 큰 관심을 갖는 이슈로서 추후 동료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고위급회의의 의제로 토의할 수 있도록 선정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짐.
- 다수 회원국들은 능력개발분야(capacity building)를 의무 주제로 선정할 것을 선호하였으며, 미국은 취약국가 관련 이슈를 제시하였음.
- 검토대상국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이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몇 개의 주제 목록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선정기로 하였으며, 대상 주제로 security reform, conflict and fragile states, accountability, anti-corruption 등 4개 이슈가 예시됨.

- 의장은 토의에서 제시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국이 2월 DAC 정례회의에 수정된 paper를 제출토록하고 특히 상기 특별이슈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한 주제의 목록을 제시해 주도록 함.

## 3. DAC 동료검토를 통한 학습 :

### DCD/DAC(2007)4

- 사무국은 동료검토 결과로 얻은 교훈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Learning through Peer Reviews”에 개략적인 방안을 제시함
- 정책의 일치, 빈곤해소, 원조의 효과성, 인도적 원조 등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동료검토 결과의 분석과 수년간의 동료검토를 통해 얻은 회원국들의 실적 분석을 추진하되 사무국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회원국들이 검토하여 추가여부를 결정할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사무국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음을 제시
- 2007년에 인도적 원조에 대한 2차 보고서 발간
- 파리선언이후 시행된 15개국 동료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보고서 발간(2008년 제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 제출 예정)



- DAC이 동료검토 시 의무적으로 부과한 주제에 대해 2년간의 동료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2009년 1/4분기에 보고서를 발간
- 동료검토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Index를 제공
- 2차례 발간된바 있는 Managing Aid 시리즈를 2008년에 개정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검토 후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사업으로 다음을 제시
  - 매 5년 마다 전 회원국의 동료검토를 통해 얻은 주요 시사점과 교훈을 종합하는 방안
  - 매년 실시된 동료검토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매년 발간되는 개발협력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DCR)에 statement로 포함시키는 방안
  - 정기적으로 동료검토 방법(Methodology)을 검토하여 교훈을 반영하는 방안
  - SLM에 특별보고서로 제출하는 방안
  - 5년 단위로 동료검토 결과를 종합하는 방안
-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다만 업무 부담 및 재원조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각 방안을 실행할 일정(calendar)과 재원을 제시해 줄 것을 요망함. 이에 따라 사무국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action plan을 5월까지 제시키로 함.
  - 한편 일부 회원국은 5년 주기의 보고서는 이미 유용성이 반감되므로 2년 정도의 주기가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